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16, 야고보서 1:1-4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6회차 야고보서 1:1-4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이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싶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설명했던 방법을 체계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James를 통해 세그먼트를 세그먼트로 이동할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 세그먼트 조사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야고보서 1:2-27에서 이미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세그먼트, 특히 주요 단위와 하위 단위에 대한 조사를 세부 분석이나 사고 흐름을 걸기 위한 넓은 프레임으로 사용하십시오. 사고 흐름은 관찰, 즉 일종의 텍스트에 대한 면밀한 읽기, 텍스트 관찰에 참여하고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한 방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결론, 말하자면 관찰적이고 관찰적인 결론, 해석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내가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야고보서 1:2-27에서 두 가지 주요 단위를 식별한 부분 조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본 것처럼 가장 중요한 휴식 시간은 15절과 16절 사이입니다.

그리고 1장 2-15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단지 끝이 아니라 지혜에 중점을 두고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특히 지혜는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첫 번째 주요 단위, 즉 제가 말했듯이 여기의 첫 번째 주요 단위 내에서 2-15절에 4개의 하위 단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정말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하위 단위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문단과 일치합니다. 1장, 즉 1:2부터 2-15까지의 첫 번째 주요 단위는 시련이나 유혹과 관련하여 시작하고 끝납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서 시련으로 번역된 단어는 peirasmois 이며, peirasmois는 유혹이나 시련으로 번역될 수 있는 peirasmos 에서 유래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은 여기 2절의 시련을 아주 적절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라.

1장, 즉 1-12장에 있는 첫 번째 주요 단위의 네 번째와 마지막 문단에도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거기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시련을 견디는 페이라스모스(peirasmos)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시험을 견디어 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명사인 페이라조메노스(peirazomenos)의 동사형이 있습니다. 아무도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고 말하지 마십시오. 페이라조메노스.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욕심대로 시험을 받으느니라. 그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같은 단어가 2절과 12절에서는 시련으로 번역되고, 13절과 14절에서는 유혹하다 또는 시험받다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반부 전체, 즉 1장의 2-15절이 이 모든 시련, 시험, 유혹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시련과 유혹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련으로 이해되는 페이라스모스 (peirasmos)와 유혹으로

이해되는 동일한 단어인 페이라스모스( peirasmos) 사이 에는 차이가 있지만 또한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의 연결.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말했듯이 2-15절을 함께 연결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페이라이스모스(peiraismos ), 시련과 유혹으로 시작하고 끝나지만 또한 이 문단 각각은 인내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헬라어 단어는 hupomone , 즉 hupomoneo가 동사 형태일 것입니다. 그들 각각은 9-11절에서 볼 수 있는 인내 또는 확고함이나 인내의 부족을 언급합니다. 인내 또는 그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두 가지 반복은 2-15절에서 야고보서 1장 내에서 일관성 있는 주요 단위로 함께 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물론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해당 기본 단위 내에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하고, 시련에 대한 반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시, 우리는 이것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물론 2절과 3절 사이의 중대한 중단입니다. 2절에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헤아리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3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접속사로 for가 있을 때마다 실체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RSV가 이것을 번역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문자 그대로 완전한 일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하고 완전하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나의 형제인 독자들에게 대한 이 연설은 책 전체에 걸쳐 발견되며 실제로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선, 그것은 작가가 독자와 독자의 상황을 동일시하도록 돕는 문학적 신학적 목적에 봉사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작가가 독자와 독자의 상황을 동일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분으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는 자신도 그들의 상황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다양한 시련을 겪는 사람으로서 독자들에게 명하는 것과 같은 기쁨으로 시련을 견뎌야 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은 위에서, 멀리서 말씀하시지 않고 동정심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야고보서 1.1의 배경 진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1; 우리는 책 전체에 대한 그의 배경, 준비 및 깨달음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면 거의 확실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초기 순교 등으로 인해 거의 배제된 야고보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이 책의 저자와 잘 맞는 야고보는 실제로 없습니다. 사실 거의 확실한 사실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 야고보가 주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학문적 합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유대 기독교의 고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산된 12지파에 대한 이 언급은 전 세계의 유대인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진정한 일반서신입니다. 그는 유대 기독교의 고귀한

지도자였으며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유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운동 전반의 기독교 교회 자체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가 실제로 신흥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주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쯤 살았던 1세기 기독교인에게 묻는다면, 기독교 운동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피터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폴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제임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지도력의 위대한 지위와 그가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거나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는 야고보, 이 야고보를 매우 빛나는 용어로 언급합니다. 사실, 요세푸스는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야고보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야고보와의 관계 측면에서 적어도 한 구절에서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작품 중 적어도 한 부분에서 예수보다 야고보에게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큰 지위를 갖고 큰 존경을 받았지만 유대 기독교 독자들에게 권위나 권위주의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차원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 나의 형제들이여. 이제 이것은 실제로 목회적 돌봄과 설교의 전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목회적 돌봄과 목회 교육을 위해 행한 일의 모델로 삼는 한, 이는 목회적 돌봄과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중 앞에 서거나 하나님의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다른 행위에 참여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고 함께 서는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르치는 반원과 함께 회중과 함께 우리에게도 말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에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이제, 제 형제들에게 언급하는 것과 관련된 두 번째 것은 신학적, 즉 신학적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문학적 신학적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시련의 구속 가능성에 관해 그는 오직 기독교 신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가 시련의 잠재적인 구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 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는 그것이 불신자를 위해 얻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긍정적인 잠재력은 시련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이 시련을 경험할 때 시련 속에서 작용하는 신성한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그리스도인의 경험, 그리고 아마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의 참여는 이런 종류의 구속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련을 위한 독특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는 권고는 다음으로 권고 자체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는 단어 순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스어의 어순은 실제로 모든 기쁨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기쁨을 생각하면 정말 기쁨과 배려가 담긴 문구, 진술이 전경에 나옵니다. 이 권고에는 몇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인 범위입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기쁨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서신의 첫 번째 단어는 파산(passan), 모든 기쁨을 배려하라입니다. 여기서 포괄적 범위가 강조됩니다.

그들은 시련에 기쁨으로, 오로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감정이나 반대 반응이 섞이지 않은 기쁨.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는 재판에 대한 반응의 양면성 또는 모호성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적이고 통일된 대응입니다. 시련에 직면하는 이 일이 개인 내에서, 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 형제애 내에서 분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감정이나 반대 반응이 섞이지 않은 모든 기쁨, 기쁨을 고려하십시오. 따라서 이 서신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온전함, 완전함, 혼합의 부족함이라는 요소가 서신 본문의 첫 번째 단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쁨을 배려하십시오.

두 번째는 물론 이것이 분명한데 기쁨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항상 우리가 해석하는 구절에서 핵심 용어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지난 세대의 위대한 설교자인 폴 리스(Paul Rees)가 말했듯이, 성경 해석자는 단어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본문에 나오는 핵심 용어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를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특히 문맥, 단어 사용, 성경적 증언의 결정 요인에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맥, 단어 사용법, 성경적 증언,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증거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 모든 것을 계획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기쁨은 궁극적인 욕구와 필요를 성취하고 깨닫고 충족시키는 데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현대의 행복 개념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행복으로 번역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것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행복은 정말로 관련되어 있고, 그건 그렇고 이것은 어원 자체, 즉 단어 자체의 발전에 부수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은 일어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행복은 상대적으로 피상적이며 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쁨은 궁극적인 욕망과 궁극적인 필요를 달성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을 포함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MORRICA의 William Morris가 쓴 『신약의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는 기쁨이 신약에서 거의 기술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 감정적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신약에 관한 한 궁극적인 갈망과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사항은 이 권고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이는 감정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평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어보거나 모든 기쁨을 고려하십시오. 실제로 권고는 시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평가이고, 모든 기쁨이며, 감정이나 태도입니다. 물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즉, 이러한 시련은 그 잠재력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기쁨의 기회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상으로, 넷째, 우리는 여기서 처음부터 놀라움의 요소에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암묵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권고는 이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의미론적 분야, 실제로 생각의 분야, 의미의 분야, 페이라스모스(peirasmos), 시련, 유혹의 분야는 부정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대조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예상되는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시련에 기쁨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의 전도와 시련에 대한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를 가리킨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이 권고를 입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기쁨을 생각하고, 권면 중에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모든 기쁨을 생각한다는 일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시련을 만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실증과 관련된 경우는 여기에 분사가 있고 여기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련을 만날 때 시간 분사이지만 인과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양한 시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련은 서로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의 기회는 당신이 여러 가지 시련에 빠졌을 때, 혹은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도를 유형과 빈도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인 관찰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양하고, 빈도에 따라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유형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시련, 다양한 유형의 시련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시련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 고유한 시련의 종류를 나타낼 것입니다. 즉, 신앙 때문에 겪는 고통과 일반 사람들이 겪는 불행 등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속하는 것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제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시련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특히 가난의 시련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요 주제입니다. 가난의 고통, 1장 9절부터 11절, 1장 27절, 2장 1절부터 7절, 2장 15절부터 16절, 단순히 가난하다는 것이 아닌 경제적 억압의 시련, 그러나 가난 때문에 억압받는다, 2장 6절과 7절, 5장 1절부터 11절.

또한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의 신랄한 말이나 이기적인 야망의 결과에 대한 시련(3:1-4:10)이 5:9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질병, 육신의 질병의 시련, 5장 14절부터 18절 등.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박해도니라 2:7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를 위하여 일컬음을 받은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냐? 이제 내가 말했듯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시련에 대해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시련은 이것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그가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언급하는 특정한 시련을 넘어, 아마도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사는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그리스어로 '페리피토 (peripipto)'라는 동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떨어지다'를 의미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각종 시련이 닥친다고 하더군요.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시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또는 그녀는 그들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순교자 콤플렉스도, 마조히즘도, 자기 채찍질도 없습니다.

사실, 신약 전체에서 여기에는 성경적 증언이 포함된다는 점, 즉 시련에 직면하는 일의 개념이 어떻게 설명되는지가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신약 성경은 두 가지 점에서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는 시련이 진정한 성장, 우리의 여정에서 진정한 양육, 확고함, 선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독특한 관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신약성경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초기 기독교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실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시련을 피하고 박해를 포함하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위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련에도 해를 끼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련을 구하지 않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마태복음 10장의 선교 담론에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해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예수께서 그곳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그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비둘기와 같은 순진한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려면,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릇된 일을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처럼 현명하다는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박해를 피할 수 있는 한 피하는 데 있어서 매우 명백하게 슬기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권고하는 이유나 이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는 이것이 3절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된 지식에 대한 계시, 즉 시련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계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시련이 확고함 등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시험이 확고함을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알기를 기대합니까? 글썄요, 더 넓은 책의 맥락으로 보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5장 10절과 11절에서는 더 넓은 책의 맥락에 비추어 개별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510,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우리는 굳건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부른다.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호와와 뜻을 보았거니와 여호와와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라. 그러므로 자문해 보면 믿음의 시험이 확고함을 낳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구약의 선지자들과 욥에게 일관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여기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적 관찰을 바탕으로 이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가 말할 때, 믿음의 시련이 확고함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시련에 대한 오해와 대조를 의미합니다. 시련에 대한 오해, 잠재적인 시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기껏해야 혼합된 기쁨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본 요점은 시련 중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적어도 시련 중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신성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그

안에는 경이롭고 초월적이며 독특한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반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련이 자비로운 기능을 수행하려면 즐거운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는 일종의 주기가 있습니다. 잠재력, 즉 시련의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한 지식은 그 긍정적인 잠재력의 실현으로 이어지며, 이는 차례로 그 시련의 긍정적인 잠재력에 대한 더 큰 지식이나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지식은 무엇보다도 즐거운 반응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반응은 긍정적인 잠재력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큰 지식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잠재력의.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로잡는 매우 긍정적이고 유익한 순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련이 반드시 또는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유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2절의 권고가 순종될 때에만 올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대안적 반응과 이러한 다른 반응의 무서운 결과가 1:13부터 15절과 5:9에 나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고, 나아가고, 기쁨으로 시련을 만나고, 믿음의 시험이 확고함을 낳는다는 것을 알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대안은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5장 9절에는 시련에 대한 또 다른 가능한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아 시련을 받을 때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고 말합니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우리가 찾은 첫 번째 대안은 하나님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시련에 대응하는, 하나님을 부적절하게 공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5:9은 다른 사람을 부적절하게 공격하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향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극심한

좌절감에 대한 심리적, 사회학적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에 잘못 연관되어 있는 극도의 좌절감을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떠맡기는 것입니다.

시련 자체는 영적으로 중립적이지만 선과 악 모두에 대한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시련을 겪더라도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시련을 겪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알려진 것은 우리의 구절에 따르면 시련의 잠재력에서 알려진 것의 잠재력에서 1.4의 과정에서 설명됩니다. 그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실제로 견고함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논의할 행위의 개념이 1장에서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믿음의 시험, 즉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으로 이 사슬을 시작하십니다.

이는 시련의 진정한 의미를 지적해 줍니다. 시련 시험, 여기서 지적하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미온 ,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시련은 신앙에 대한 도전을 낳고, 이는 신앙을 강화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강화하거나 파괴하는 두 가지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여기서 도키미온 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라는 단어인 도키미온은 이 구절에서 테스트하는 과정, 테스트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연단의 영역과 관련됩니다. 사실, 바로 이 동일한 언어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사용되었으며, 도키미온 또는 시험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이를 정련의 영역, 즉 금속을 정련하는 과정과 연관시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제 잠시 여러 가지 시련을 받아야 할지라도 기뻐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영광으로 삼으십시오. 이 테스트는 정화로 이어지도록 의도되었으며 정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정화에서 강화까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은 불순한 금속은 약한 금속이고,

정제의 결과, 정제의 정화가 금속을 더 강하게 만들고, 따라서 더 탄력 있고, 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결에 대한 언급은 다시 전체와 종교의 순결에 대한 야고보의 관심으로 이어지며, 이 경우에는 믿음에 반대되는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은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은 실제로 믿음의 정화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다르며 믿음을 약화시킬 모든 것을 믿음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시험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삭을 결박하는 아게다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를 얻은 *perperazo* 라는 단어는 70인역 창세기 22장 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지만 세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욥, 그리고 이스라엘, 40년간의 광야 방황 동안의 이스라엘, 특히 민수기 14장, 20장부터 24장까지, 신명기 6장부터 8장, 특히 이스라엘의 그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욥은 야고보서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은 2장에, 욥은 5장 1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구약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시험의 예인 이스라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자, 믿음, 물론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 두는 신뢰, 믿음의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써 형성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인지, 특히 그분은 한 분이라는 인식으로 형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2.19,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고전 1:5, 6,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먼저 5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가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의 물결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했듯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특히 그분은 한  
 분이시며 선하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을 통해 형성됩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이다.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자라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과 자유를 능히  
 구원할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등을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행복을 위해  
 이러한 종류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헌신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 특히 하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완전하고 조건 없이 우리 편이시라는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시험을 통해 시험받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선을 의미하시는지, 실제로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에 있어서 한 분이신지 궁금해하게 함으로써 그런 종류의 믿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련의 진정한 성격과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  
 시련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시험이 확고함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단어는 휴포미네(hupomine) 이다. 물론 야고보는 이러한 시련 없이는 이러한  
 확고함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확고함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확고함을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하고, 최종 구원을  
 위해서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5.7부터 11까지에서 그분이 말씀하실  
 내용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식물을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까지 길이 참느니라. 당신도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너희 마음을 굳게 하라.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라, 재판관이 고난과 인내의 모본으로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택하라. 보라, 우리는 그들을 행복하다고 부르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마카리오스 (makarios) 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나는 행복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건한 자를 복되다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너희는 옴의 인내를 들었고 여호와와 뜻을 보았거니와 여호와와 자비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니라. 그리고 물론 최종 구원을 가져오는 측면에서는 동정심이 많고 자비롭습니다.

최종 구원을 가져오는 측면에서 축복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련을 겪은 결과로 오는 이러한 확고함은 최종 구원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시험에서 굳건함에 이르는 이 과정은 사슬의 세 번째 요소에서 정점에 도달합니다. 굳건함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는 정말 ergontelion 입니다. 완벽한 작품이죠.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진 완벽한 일입니다.

여기 실증에서 당신은 실증이 실제로 권고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고함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의 최종 목표는 확고함이 아니라 완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함입니다. 즉,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품성에 관한 한, 그리스도인의 품성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절정적인



권고는 이들 중 어느 것도 자동적이지 않으며 작가가 능동적 대 수동적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확고함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에 대한 믿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계속 행동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확고함이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꺼이 믿음의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물론 이런 종류의 믿음은 그가 2장에서 강조할 것처럼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그리스어로 텔레오스 (teleos) 로 사용된 온전한 단어의 용법을 잠깐 살펴보면, 이는 포괄적인 의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칠십인역에도 나옵니다.

포괄적인 의,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의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게 합니다. 인내는 어떻게 당신을 온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이 포괄적인 의를 만들어 내는가? 이런 종류의 인내가 이런 효과를 갖도록 어떻게 허용합니까? 그 대답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존이 삶 전체에 퍼져 삶의 모든 영역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이 하나의 핵심 현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십시오.

야고보는 기독교인이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모든 차원, 즉 시련과 반대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 전체, 일반적인 성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전하고 온전하고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존재의 중심으로 삼아 모든 선하고 긍정적인 충동이 삶에 들어오게 하고, 이 모든 미덕이 통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존의 중심, 바로 이 믿음을 중심으로 결집하십시오. 당신이 온전하고 온전하여 아무 것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러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참된 믿음, 이러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이며 참된 믿음은 그 사람의

성품을 형성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행함을 가져올 것입니다(2장). 이제 이러한 완전함은 사람들에게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당신은 삶의 진정한 온전함, 일관성, 단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그 자체가 참으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삶은 통일되고, 통합되고, 전체가 될 것입니다.

토벨리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확고함을 완벽하게 발휘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완벽한 작품이에요, 토벨리우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한 작품입니다.

이제 제임스의 완벽함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텔레오스는 이해력, 일관성, 일관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나는 그것이 야고보의 완전 신학의 세 가지 주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여기에는 포괄성, 일관성, 일관성이 포함됩니다.

일관성과 일관성의 요소는 '완전하다'라는 뜻의 '텔레오스'라는 단어로 강조되는 반면, 이해의 요소는 특히 '완벽하다'라는 뜻의 '할라클레로스'라는 단어로 강조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문구는 할라클레로스의 특정화일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부정적인 특정화일 수 있습니다. 부족함, 완전함, 완전함, 완전함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포함합니다.

혼합된 동기나 이해 상충이 없는 정직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에 관한 한, 이 믿음은 통일된 삶의 중심을 형성할 만큼 충분히 큰 유일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신의 품성과 일치하도록 형성된 인간의 품성이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또 2.19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시니 이제 우리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나되신 것같이 하나가 됩니다. 확실히 같은 정도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완전합니다. 총체적 선함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총체적 선하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총체적 선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자라나는 총체적 믿음을 포함합니다.

시련이나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는 두 가지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구약성경에는 고난과 죄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고난은 죄의 결과인 반면, 행복은 의의 결과입니다.

지혜 전통의 여러 부분과 구약성서의 소위 신명기 신학에서도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인 반면, 행복은 의의 결과입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고통, 특히 질병이 죄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5장 14절과 15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가 죄를 지었다면 조건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는 동일한 문장에서 때때로 죄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야고보서에서는 강조되지 않으며 이 구절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련이나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의 두 번째 주요 측면은 고난이 시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특히 야고보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아브라함과 욥에 주목합니다.

이 두 가지는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정확히 이런 방식으로 언급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야고보서 2:21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물론 창세기 22장과 욥의 시험에 대한 암시, 511장, 욥기에 대한 암시입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이 두 번째 이해를 강조하고 예를 포함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본에 유의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축복받은 모범이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욥기 5장에서는 욥과 관련하여 우리는 굳건한 자를 복이 있다고 부릅니다. 이 구절에서 시련은 고통당하는 사람의 죄나 범죄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12절부터 18절에 언급된 것 외에 시련에 내재된 또 다른 유혹을 암시적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야고보가 고통과 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시련에 대해 우리 자신을 비난함으로써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합니다. 12-15절에서처럼 자기 비난은 시련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시련의 근원과 시련의 원인이 아니라 시련의 결과가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더욱이, 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22:1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에 있는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야고보는 이 구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비록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창세기 22장 1절의 의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12절부터 1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만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경험보다는 궁극적인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인간, 특히 즉각적인 만족과 결과에 대한 현대적 욕구에 대한 장기적인 목적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력에는 본질적인 근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을 대변하는 야고보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설명된 긍정적인 결과는 결과의 즉각성과 비교하여 결과의 품질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성격과 편안함이 강조됩니다.

이는 고통과 불편함이 없는 것을 포함한 즐거움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는 쾌락주의와 다른 모든 형태의 사고에 반대됩니다. 여기서 제임스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피쿠로스주의의 관점이다.

예를 들어 Epictetus에서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효 기간이 긴 에피쿠로스주의의 견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대 사고에서도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선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선은 쾌락입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주의에서 쾌락은 성적 만족, 즉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 괴로움의 부재의 관점에서 이해되었습니다. 비록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볼지라도 스토아주의는 대체로 이 문제를 다루려고 시도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통해 안락사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암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락사가 통증 완화를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고통과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기독교 신학과 윤리의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높은 선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의 관점이 신 중심 대 인간 중심, 신 중심 대 인간 중심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현실은 삶 전체에 스며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현실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진짜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러한 시련에 내재된 잠재력은 신성한 힘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에 내재된 이 신성한 힘에 자신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권고의 의미입니다. 확고함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신성한 힘이 이 확고함 속에서 작용하도록 허용하세요.

자, 여기서의 모델은 비록 말했듯이 능동 대 수동입니다. 여기서의 관심은 단순히 시련을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 무사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새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수동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관심은 단순히 시련에서 살아남고 어떻게든 상처 없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시련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이런 효과를 가지려면 사람이 행동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4절: 견고함을 온전히 이루라.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에피쿠로스주의를 언급했지만 이것은 실제로 스토아주의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스토아주의는 야고보의 그리스-로마 맥락의 또 다른 주요 철학이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이러한 외부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수동적 모델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고통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대체로 무시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행동하라고 권합니다.

이 구절은 또한 고통의 신학 대 성공의 신학을 제시합니다. 야고보는 참되고 궁극적인 선은 고통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신약성경의 개념과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공의 신학은 종종 본질적으로 에피쿠로스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고통을 피하고, 괴로움을 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시련에 대한 반응, 즉 기뻐하는 것에서 지혜 부족에 대한 반응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에는 5절부터 8절까지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포함된 기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은 우리가 여기서 잠시 쉬어가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여기서 멈추고 야고보서 1:5의 다음 부분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16회차 야고보서 1:1-4입니다.